

尹 탄핵 심판 장기화...국민 부담 갈수록 '눈덩이'

한덕수 권한 대행 '버티기'에 '내란 사태' 계속 환율 치솟고 외국인 투자 줄어 경제 위기 심각

국민의힘의 탄핵-특검 지연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보류하면서 국정 혼란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만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차 한국을 리스크 대상으로 여기고 외국인 관광객도 발길을 끊는 등 전 국민을 향한 '계엄-탄핵 정국'이 구제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활동 지장이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도 '대각성'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시간끌기'에 몰두하면서 국민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탄핵 심판 장기화 우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

서 탄핵 심판 지연 우려는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권과 한 권한대행은 버티기 전략 등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 과정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현재는 현재 9명 정원 중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명 전원만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통과된다. 6인이 심리를 할 경우 심판기간도 되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6명 중 1명의 재판관이 사퇴할 경우에는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판 기간 180일을 다 채우고 싶어서

는 여권과 정부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여권에서는 '의결정족수'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가결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 규정은 없다. 여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된다"는 논리로 시간을 끌고 있고, 야당은 "국무총리는 재적 의원 과반(151석)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자 진실공방, 수사지연 우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과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이날 '계엄건의 절차'를 두고도 진실공방에 나섰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무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관련자들의 진실이 엇갈리면서 수사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사지연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 몫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았다. 앞서 현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송신년 기자회견 내용

광주시, 확장 재정으로 '민생 방파제' ... 전남도, 7대 전략 추진 '위기를 기회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내년도 시·도정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지원 확대 등으로 압축된다.

◇심중 경제 한파 견디고, 경제 활성화=강기정 시장은 26일 '송·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 2024년 시정 성과'를 설명하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에 따른 '민생경제'를 화두로 2025년 시정 구상계획'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2024년 시정 최고 성과로 전국 최초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과 '24시 공공 심아어린 이병원' 운영을 통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표준모델 마련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또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손자녀가족 돌봄', '산단근로자 아침밥 제공' 사업, '공공배달업 활성화' 등도 소소하지만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사회 모델 정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 밖에도 대규모 복합쇼핑몰 조성 순항, 24개 도시공원 조성, '대자보 도시 프로젝트' 추진 등을 2024년 광주를 활기차게 바꾼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강 시장은 이날 2025년 시정 운영과 관련해선 삼중 경제 한파를 우려하고, 더 힘들어질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가장 먼저 확장 재정으로 '민생 방파제'를 만들고, '소비그릇'을 키워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광주시는 현재 내년 민생경제 회복 예산 1082억 원을 포함한 총 7조6000억 원의 본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도 확장 재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도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또 문화·예술·스포츠 등 광주의 강점을 살린 '2025년 광주 방문의 해'를 적극 활용해 소비 활성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송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화 등을 이끌 계획이다.

'AI-미래차-RE100' 등 미래 산업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위기 넘어 더 큰 전남으로 도약=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날 송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년 도정 운영 방향은 ▲민생 안정 ▲혁신 성장 ▲미래 에너지 산업 선진 ▲글로벌 브랜드 육성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 ▲혁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가동 등 7가지 전략에 방점이 찍혀있다.

민생 안정 분야의 경우 한정지서를 파고든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

을 입고 있는 점을 고려해 23개 사업에 예비비 1185억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전남도 자체 예산 175억원을 투입해 3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할인율을 10%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연년에 직면한 배 재배농가,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양식어가, 김 가공업체 등에 91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도약에 어르신 부식비로 30만원씩 지급한다. 버스타키 운수종사자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차세대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성장 분야는 '333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오는 2034년까지 ▲벤처·스타트업 기업 3000개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300개 ▲상장 기업 30개 확대 등으로 '기업이 몰려오는 전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에너지산업' 분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우뚝 서겠다는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도는 김양식어장 면적 확대, 국립김산업진흥원·마른김 전용 물류센터 구축 등 김산업 육성 기반 시

설 투자를 진행한다.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는 '전남도 문학박람회' 개최, '전남도 문학관' 건립 본격화, '전남수목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을 통해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대 회복', '월 1000만명 생활인구' 유치 등을 이뤘다. 전남도는 각오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명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www.kwangshin.ac.kr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36